‘4위 도약’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상위권 넘본다

12일 삼척시청과 1라운드 3차전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1승 2패
골키퍼 포지션서 진검 승부 기대
“승패 좌우할 핵심은 수비 능력”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서아루(왼쪽)가 지난 5일 충북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린 부산시설공단과 신한 SOL Pay 2024~2025 핸드볼 H리그 1라운드 2차전에서 득점에 성공한 뒤 연지현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개막전 패배 직후 시즌 첫 승에 성공하며 분위기 반전을 이룬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상위권 도약에 도전한다. 여덟 개 구단이 나란히 두 경기를 소화한 가운데 4위에 올라있는 광주도시공사는 플레이오프권 진입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9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핸드볼팀은 오는 12일 오후 2시 대구 달서구 계명문화대 수련관에서 삼척시청과 신한 SOL Pay 2024-2025 핸드볼 H리그 1라운드 3차전을 치른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일 충북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린 경남개발공사와 개막전에서 24-31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지난 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부산시설공단과 맞대결에서는 27-24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이로써 이번 시즌 첫 턴을 1승 1패(승점 2)로 마무리한 광주도시공사는 플레이오프권 마지노선인 4위에 올랐다. H리그 여자부는 정규리그 1위가 챔피언결정전, 2위가 플레이오프에 직행하고 3위와 4위가 준플레이오프 맞대결을 치른다.

광주도시공사는 앞선 두 경기에서 51득점과 55실점을 기록하며 득실차가 -4에 그쳤다. 득점이 네 번째로 많지만 실점 역시 세 번째로 많은 상황으로 공격력을 유지하되 수비력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삼척시청은 1승 1무(승점 3)로 3위에 올라 있고 58득점과 47실점을 기록, 득실차는 +11에 이른다. 득점이 두 번째로 많고 실점 역시 두 번째로 적어 공수 양면에서 탄탄한 모습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시즌 첫 승을 견인한 서아루와 송혜수의 공격력에 기대를 건다. 앞선 두 경기에서 서아루는 14득점과 1도움, 송혜수는 8득점과 16도움을 기록했다. 리그 전체에서 서아루는 득점 공동 3위, 송혜수는 도움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양 팀 골키퍼들의 진검 승부다. 올 시즌을 앞두고 박조은과 맞트레이드로 SK슈가글라이더즈에서 영입된 이민지는 앞선 두 경기에서 24세이브로 34.29%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반면 국가대표이자 삼척시청의 수문장인 박새영은 앞선 두 경기에서 34세이브를 기록하며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선방을 했고, 방어율 역시 43.59%로 여덟 개 구단 주전 골키퍼 중 두 번째로 높다.

오세일 감독은 빠르게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만큼 수비에서의 안정적인 흐름을 공격으로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두터운 선수층을 갖춘 만큼 체력적으로도 충분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오 감독은 “개막전에서는 훈련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수비에서 실점으로 나타났다.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 실점이 많아지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수비 훈련에 중점을 두면서 빠르게 보강했다. 수비가 잘 되면서 공격까지도 흐름이 잘 이어졌다”고 복기했다.

이어 “결국 수비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다. 삼척시청에 맞춰서 수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골키퍼가 워낙 좋다 보니 노마크 찬스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체력적인 안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체로 전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고, 지치는 모습 없이 경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제4대 광주시농구협회장 선거 ‘불공정’ 시비…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배영종 전 광주시농구협회 부회장
선거인단 배정 규정 위반 등 지적

제4대 광주시농구협회장 투표를 나흘 앞두고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선거에 출마한 배영종 전 광주시농구협회 부회장은 선거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법에 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배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광주지법에 제4대 광주시농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배 전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선거는 중지된다.

이번 선거에는 배 전 부회장과 배준태 광주시농구협회 전무이사가 후보로 등록했다. 이들은 오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뒤 13일 오후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릴 예정이었다.

배 전 부회장은 선거인단 배정 규정 위반과 불공정성, 선거 일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선거 참여 기회 제공과 후속 분쟁 방지를 위한 선거 중지를 촉구했다.

배 전 부회장은 “선거인 명부가 규정을 위반해 작성됐다.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광주시체육회의 공문 역시 무시됐다”며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포함됐다. 일부 전문체육 선수들에게만 선택적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요구해 투표 참여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 운동 기간이 5일부터였으나 명부 재추첨을 이유로 지난 7일에야 선거인 명부를 받아 충분한 선거 운동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며 “공고된 투표일에는 전문체육 지도자와 선수들의 전지훈련과 연수 등으로 특정 직군의 선거 참여가 제한된다. 선거인 명부 전면 재추첨과 선거 일정 및 투표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유사한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투표 하루를 앞두고 전격 중지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 7일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전 이사장은 선거운영위원회 명단 공개 거부와 선거인단 명부 작성 비공개, 사전 투표 미실시 등을 지적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한규빈 기자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